



KOCHAM ECONOMIC REPORT

제 2013-27 호

2013년 4월 11일(목)

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4월 첫째주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 예상 하회
- 2) 연준(FRB), 양적완화 조기 종료 시사

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중국 북한전문가, 5~6월사이 한반도 전쟁발발 확률 70% 주장
- 2) 라가르드 IMF총재, 신흥국의 환율위기와 선진국의 채무위기 지적

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일본 주요 자동차 제조사, 에어백 결함으로 173만대 리콜 조치
- 2) 마이크로소프트, 연내 7인치 태블릿PC 생산 돌입

□ 미국 경제 동향

1) 4월 첫째주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 예상 하회

- 지난 4월11일(현지시간) 미노동부는 지난 4월 첫째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대비 4만2천 건 감소한 34만6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
 - 이는 전문가 예상치 36만 건을 하회하는 수준으로
 - 3월 마지막주 청구건수는 38만5천 건에서 38만8천 건으로 상향조정
- 전문가들은 3월 마지막주 실업수당 청구 급증은 부활절 및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, 신규실업 청구건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며,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

2) 연준(FRB), 양적완화 조기 종료 시사

- 지난 4월10일(현지시간) 연준(FRB)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 의사록을 공개
 - 상당수 참석자들은 노동 시장이 예상대로 개선될 경우 일정 시점에 자산 매입 속도를 늦추고 연말까지 종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
- 양적완화 조치 지속 기간을 두고 위원들간 견해차를 보임
 - 일부 위원들은 양적완화 등 유동성 확대를 위한 경기부양책을 올해로 끝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
 - 반면 다른 위원들은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혜택이 비용이나 위험보다 더 높다고 판단
- 한편, 지난 4월8일(현지시간) 버냉키 의장은 미경제의 체질이 2009년보다 훨씬 강해졌지만 모두가 기대하는 수준과 아직 거리가 좀 있다고 언급한바 있음

□ 해외 경제 동향

1) 중국 북한전문가, 5~6월사이 한반도 전쟁발발 확률 70% 주장

- 지난 4월10일(현지시간)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의 대표적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중국공산당 중앙당교(고급 당간부 학교) 장롄구이 교수가 북한의 최근 행동을 분석해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70~80%로 예상했다고 보도
 - 장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초대 김일성은 건국을 실현했고, 2대 김정일은 군사력을 증강했으며, 김정은의 역사적 임무는 남북통일로 3대 최고 지도자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려는 자각이 강하다고 지적
 - 또한 홍콩 문화보(文匯報)와의 인터뷰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70~80%라고 말한 뒤 시기에 대해서는 5월이나 6월이라고 예상
- 한편, 중국 신화통신은 북한의 지도자는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

2) 라가르드 IMF총재, 신흥국의 환율위기와 선진국의 채무위기 지적

- 지난 4월10일(현지시간) 라가르드 IMF 총재는 미국 뉴욕 연설에서 신흥시장의 환율 위기와 미국과 일본의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채무 위기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
 - 라가르드 총재는 금년 세계 경제가 지난해보다 가파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생각지 않으며, 다수의 국가에서 금융시장 여건 개선이 실물 경제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
- 신흥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, 선진국의 저금리 정책이 신흥국들의 부채를 늘리고 향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환위험 노출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
- 또한 미국에 대해 단기간에 지나치게 빠르게 재정적자를 감축하느라 성장세를 위축시키면서 장기적인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
- 한편 전문가들은 라가르드의 발언이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고르지 않아 금융 불균형이 만들어지고 있으며, 이는 미래 위기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

□ 산업·시장 동향

1) 일본 주요 자동차 제조사, 에어백 결함으로 173만대 리콜 조치

- 지난 4월11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은 토요타, 혼다, 닛산, 마쓰다 등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은 조수석 에어백 결함 문제로 모두 41개 차종 73만1천대의 리콜을 일본 국토교통성에 신고했다고 보도
 - 리콜대상은 해외 판매 분까지 포함할 경우 모두 292만대에 이름
- 한편, 야마다 시노 토요타 대변인은 에어백 팽창 장치 결함으로 전 세계에서 모두 173만대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힘
 - 문제가 된 차종은 코롤라 등 20개로 일본 32만대, 북미 58만대, 유럽 49만대, 중국과 중동 등 기타 지역 34만대 등
- 혼다도 같은 문제로 전 세계에서 114만대를 리콜하기로 결정

2) 마이크로소프트, 연내 7인치 태블릿PC 생산 돌입

- 지난 4월11일(현지시간) 월스트리트저널(SWSJ)은 마이크로소프트(MS)가 금년내 태블릿PC 'Surface' 의 7인치 버전을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
 - 신규 Surface 모델은 지난해 여름 발표된 구글의 7인치형 넥서스와 역시 지난해 10월 공개된 애플의 7.9인치형 아이패드미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
 - 기존 Surface 제품은 10.6인치 크기의 화면을 채택하고 있음
- 한편,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4/4분기 출시된 태블릿PC의 절반이 8인치 이하 제품으로 조사됨